

골목경제 활력 높이고 민생 현장 안전 챙긴다

전주시, 카드수수료 지원·골목형상점가 확대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지역 소비 촉진·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전주시가 골목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민생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민생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소비 촉진,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한편, 전통시장 상인과 이동노동자의 안전·휴식 여건도 함께 챙길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업체당 최대 30만 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과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 여건 조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시는 골목상권의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현재 81곳인 골목형상점가

를 추가로 발굴·지정해 은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상권을 늘리고, 하반기에는 '제6회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를 열어 상권별 특색을 살린 소비 촉진 행사와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문화와 관광을 접목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다는 구상이다. 일례로 남부시장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4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백년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시장이 지닌 문화·역사적 가치를 브랜드화하고, 로컬브랜드 개발과 상인 역량 강화, 디지털·AI 기반 경영지원 등을 연계해 개별 점포의 경쟁력과 시장 전체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올 하반기에는 남부시장 야시장 문화행사와 와글와글시장가요제

를 비롯해 모래내시장·서부시장·신중앙시장 등 시장별 강점과 매력을 담은 다양한 문화행사도 이어진다. 시는 전통시장의 먹거리와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시장으로 이끌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온라인·디지털 경쟁력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시는 공공배달앱 '전주 맛배달'의 가맹점 확대와 할인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담스퀘어 전주'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교육과 온라인 판로 지원도 병행기로 했다.

나아가, 시는 전통시장 상인과 이동노동자 등 민생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고 휴식 접근성 높이는 데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먼저 전통시장에서는 열을 생수 나눔과 폭염 행동 요령 안내, 취약상인 예찰 활동이 지속 추진되며, 전기·소방시설 관리와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해 확인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동노동자에 대한 현장 지원도 계속된다. 현재 효자동과 송천동에서 운영 중인 거점형 쉼터 2곳만으로는 이동노동자의 넓은 활동반경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카페·편의점 등 7곳을 이동노동자 연계형 쉼터로 운영해 계절별 음료와 냉·난방 공간, 화장실 이용 등을 지원하고, 생활권 중심의 휴식공간을 확충해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세계 그림책 거장’ 한자리에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지미 리아오·김동성 등 초청 작가 공개

오는 10월 '책의 도시' 전주에서 개최되는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 대한민국 대표작가들과 그림책·출판 강국으로 손꼽히는 대만의 주요 작가들이 함께 하는 축제로 꾸며진다.

전주시는 오는 10월 2일부터 25일까지 24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일원에서 열리는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기본 계획과 중점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은 'Picturing the Memories(기억을 그리다)'를 주제로 열린다. 이는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추억과 기억을 '그림책'이라는 시각 예술을 통해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장을 연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전시를 넘어, 그림책 기반 출판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림책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담은 행사의 주무대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으로 옮겨 이전보다 한층 확장된 규모로 관람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메인 초청 작가 라인업도 여느 때보다 화려하다. 올해는 동아시아 그림책 및 출판 강국인 대만 작가들의 작품들을 집중 조명한다. 대표적으로 대만 일러스트레이션을 대표하는 세계적 거장인 지미 리아오 작가가 3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국내 팬들과 만난다.

지미 리아오 작가는 영화·뮤지컬 등으로 각색된 '별이 빛나는 밤'과 '왼쪽으로 가는 남자', 2006년 베를린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애니메이션 '비스 자는 물고기'의 원작자이자 '인생이라는 이름의 영화관'으로 '2020 볼로냐 라가치상'에서 시네마 특별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거장이다.

또한 올해 도서전에는 △리우쉬 공 △린샤오베이 △우루이지 △잔디어 등 대만의 실력과 작가들이 대거 참여해 동양권 전시와 현대적 세련미가 어우러진 작품들을 선보인다.

한국 대표 작가로는 특유의 섬세하고 서정적인 화풍으로 한국적인 정서와 기억을 담아내는 가장 김동성 작가가 참여한다.

김동성 작가는 2004년 '엄마 마음'으로 백상출판문화상을 수상했고, '꽃에 미친 김 군'으로 2025 서울국제도서전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 대상, '2025 대한민국 그림책상' 특별상, '2026년 볼로냐 라가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시는 24일간의 상설 원화 전시 외에도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분행사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본 행사는 △국내외의 그림책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다루는 '그림책 콘퍼런스' △국내외의 36개 출판사가 참여하는 '북마켓' △작가와 직접 소통하는 '강연 및 워크숍' △국내외 출판인들의 정보 교환을 위한 '출판 교류 세미나'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만호 기자

조지훈 전주시장, 민선9기 첫 구청 현장 업무보고

완산·덕진구청 부서 순방 격려

조지훈 전주시장이 민선9기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직접 찾아 현장 중심의 소통에 나섰다.

조지훈 시장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각각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차례로 방문해 부서 순방 및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업무보고는 시장 본청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던 다른 실·국과 달리 시민의 일상과 가까운 현장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구청을 시장이 직접 찾아가 시장 철학을 공유하고, 직원들



조지훈 전주시장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각각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차례로 방문해 부서 순방 및 주요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격려하며 주요 현안을 구체적으로 살피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전주시 주민자치회 성공 안착 위한 전문가 포럼 열려

전주시가 주민들이 주도해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전주형 주민자치'의 안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전문가 및 시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13일 시청별관 15층에서 주민대표, 시민, 시의원, 관계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주민자치회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소통으로 하나되고, 협력으로 완성'하는 전주형 주민자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

라 기존 행정 자문기구 성격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1부 주제 발표와 2부 좌담회 형식의 패널토론,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1부 주제 발표에 나선 조미정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로드맵 및 과제'를 주제로 전주시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2026년 주민자



전주시는 13일 '전주시 주민자치회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치회 조례 제정 및 교육체계·매뉴얼 등 제도적 기반 구축 △2027년 상반기 4개 동 시범운영 △2027년 중반 성과 분석 및 보완 △2027년 하반기 전주시 35개 전 동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전면 시행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진 2부 패널토론에서는 이승모 등 제도적 기반 구축 △2027년 상반기 4개 동 시범운영 △2027년 중반 성과 분석 및 보완 △2027년 하반기 전주시 35개 전 동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전면 시행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

라 공동단체 박춘원 은행장·정원호 노조위원장)은 13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를 통해 지역 내 주거 취약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생활 안정 지원금 320만 원을 전달했다.

전북은행 임직원으로 구성된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환경정화, 복지시설지원,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등 다양한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주거생활 유지 지원사업'을 통해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기초생활수급 가구를 비롯한 행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주거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체납된 임대료 및 주거 관리비 △임차가구의 주거상향 이사비 △노후화되거나 고장난 주거생활 필수 가전제품 지원 등이다.

/이만호 기자

「허브밸리를 찾아온 특별한 친구들」

세계 양서·파충류 특별기획전

2026. 7. 25.(토) ~ 8. 30.(일)

지리산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전시실

문의 : 063-620-4891

매주 월요일 휴장 (8월 17일 정상 운영, 8월 18일 휴장)